



2021년 7월 3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2.(금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7. 2.(금)	담당부서	신에너지산업과
담당과장	배준형 과장(044-203-5390)	담당자	이승원 사무관(044-203-5395)

주민 합의 상생(원-원) 모델 인천연료전지발전소 준공 - '21.6월부터 최대 연 11만 가구에 전력·열 공급 -

-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7.2일(금) 오후 인천 동구 송림동 일반공업지역 내 건설된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였음

<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 개요 >

- 일시/장소 : '21.7.2(금) 15:30~16:15(인천광역시 동구 염전로 45)
- 주요참석자 : (정부) 박진규 산업부 차관
(지자체) 박남춘 인천시장, 허인환 인천동구청장
(국회) 허종식 의원, 이성만 의원
(지방의회)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, 정종연 인천동구의회 의장
(주주사) 한국수력원자력, 두산건설, 삼천리
(지역주민) 민관안전·환경위원회 등
- 내용 : 인천연료전지 준공식, 공로자 포상(산업부장관), 감사패 전달 등

- 인천연료전지 발전소는 발전사인 한국수력원자력, 도시가스 공급사인 삼천리와 두산건설이 함께 추진해 온 사업으로, '19.11월부터 약 18개월에 걸쳐 건설이 완료되었음

- 동 발전소의 시설용량은 39.6MW로, 연간 약 8.7만 가구(3억2천만kWh)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과 약 2.6만 가구(16만4천Gcal)가 사용할 수 있는 열을 생산하여 인천 동구 등의 주변 대규모 주거지에 공급할 계획임

* 300m 이내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소재(풍림아이원 1,365세대, 휴먼시아 1,011세대)

< 인천연료전지 개요 >

- 위치 : 인천 동구 방축로 42(약 2,700평)
- 시설규모 및 사업비 : 39.6MW (두산퓨얼셀 440kW급 PAFC 90기), 총 2,543억원
- 주주사 : 한수원 60%(REC 구매), 삼천리 20%(도시가스 공급), 두산건설 20%(EPC)

- 인천연료전지 발전소는 건설 과정에서 주민 반대가 있었으나, 정부·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합의되어 준공될 수 있었음
 - 당초 '18.12월 인천 동구청의 건축허가를 취득하였으나, 인근 주민의 반대로 '19.1월부터 약 10여개월 간 건설이 중단되었음
 - 건설 중단 후 인천시-동구청-주민대표-사업자 간 4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, 산업부 주관 주민 설명회('19.10)도 개최하는 등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 끝에 '19.11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음
 - 특히, 민관안전·환경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료전지 발전소가 건설·운영 되는 동안 주민들이 직접 안전성과 환경성을 확인하여 관련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으며,
 - 전국 최초로 기초단위 지자체(인천 동구 등 6개 구청) 간 합의를 통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을 각 기초지자체에 배분하지 않고, 해당 발전소 소재지의 기초 지자체(인천 동구)에 일괄 지원하여 발전소 건설 시 인근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성과도 거두었음
- 한편, 정부는 “수소경제 로드맵”(19.1월)에 따라 수소경제 달성의 중요한 축인 연료전지의 보급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임
 - * 로드맵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목표(누적) : '22년 1.5GW(내수 1GW) → '40년 15GW(내수 8GW)
 - 특히, 수소법 개정을 통해 ‘청정수소 인증제’ 및 ‘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’ 도입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연료전지의 친환경성을 더욱 강화하여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
- 박진규 차관은 축사를 통해 “인천연료전지 발전소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분산형 연료전지의 모범 사례”라고 강조하면서,
 - “정부도 ‘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’ 도입 등을 통해 연료전지를 포함한 수소 발전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밝힘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 이승원 사무관(☎ 044-203-539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